가고 싶은 '담양 죽녹원'

2018년 1월~2022년 7월까지 광주·전남 관광지 내비 검색 1위

담양 죽녹원이 전남 대표 관광지임을 입증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대표 관광지 죽녹원은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지역별 관광지 검색 순위'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 관광지의 내비게이션 검색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다.

죽녹원은 지난 4년 6개월간 월별 최다 검색 관광지 중 누적횟수 1위를 19차례나 차지해 1위에 올랐고, 여수 오동도와 순천만 국가정원은 각각 10회와 9회로 2, 3위를 차지했다.

2005년 문을 연 죽녹원은 담양군이 성인산 일대에 조성한 대나무 정원으로, 약 31만㎡의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숲과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정자문화 등을 볼 수 있는 시가문화촌으로 구성돼 있다.

죽녹원에는 살균 작용, 면역체계 강화, 스트레스 완화, 심리안정, 숙면 유도 등의 효과를 가진 피톤치드가 가득한 대나무숲에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2㎞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이와 더불어 전망대와 쉼터, 정자, 다양한 조형물을 비롯 영화·CF촬영지와 다양한 생태문화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60만명 이상이 찾는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또한 죽녹원은 순천만정원이 전라남도 지방정원 제1호로 등록된 이후 두 번째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으며. 전국적으로도 순천만국가정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경기 세미원에 이어 네 번째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정원문화 관광 일번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죽녹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AI 아나운서가 강진 소식 전합니다"

군 유튜브 '찐TV' 매주 월요일 보도…4차 산업혁명 활용 첫 시범사례
빠른 뉴스 제작·예산 절감…지역 관광 디지털 전환·스마트 팜 등 확대

"AI(인공지능) 아나운서가 강진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진군이 10월부터 'AI 아나운서〈사진〉'를 활용한 군정 뉴스 서비스를 강진군 유튜브 '찐TV'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군이 제작하는 AI아나운서 뉴스는 가상인간이 마치 실제 아나운서처럼 강진군 소식을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다.

특히 이번 뉴스 서비스는 민선8기 들어 새롭게 개설된 '4차산업혁명팀'의 신입 주무관이 나홀로 제작해, 강진원 군수가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의 방법론으로 제시해온 '4차산업혁명 활용의 첫 시범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는 딱딱한 구성에서 벗어나 아나운서의 재미있는 진행으로 꾸며, 구독자들의 흥미를 더한다는 계획으로 매주 월요일 강진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 된다.

이번 AI뉴스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AI 가상영상 합성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뉴스 제작에 비해 프로그램 사용료 3000원~5000원 정도 이외에는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는 데다가 별도의 녹화가 필요치 않아, 신속한 뉴스 제작이 가능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4차산업혁명지원팀은 AI 뉴스 제작을 시작으로 지역 관광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농업 분야 스마트 팜, 드론 활용 농업 선진기술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통해, 작은 도시 강진에 시공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AI 아나운서 뉴스 제작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군의 주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뉴스 전달에서 벗어나 강진의 관광을 알리고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관광·경제·농업 등 103개 시책 발굴

지난 11일 열린 '2023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화순군 제공〉

지난 11일 열린 보고회는 120대 국정과제와 도정에 발맞춰 민선 8기 군정 운영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 경제, 농업, 환경, SOC, 복지 분야 등 103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해 군정 목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문화관광 분야 ▲문화관광유적지 주변 전통 향토 경관숲 조성 ▲환산정 주변 문화 관광단지 조성 ▲도장리 밭노래 전수관 건립 등을 추진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도관광 1번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는 ▲능주면 석고지구 및 화순읍 교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2023년 화순사랑상품권 연중 특별할인 시행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농업 분야는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사업 공모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분소 신축 ▲한우 브랜드(적벽한우) 육성 지원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 작약 육성 지원 등 사업이 검토됐다.

복지·환경 분야는 ▲이양 홍수조절지 활용 방안 추진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사업 등이 논의됐다.

발굴된 시책은 소요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 활동 등 시책 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대덕~용산 국도 10.12㎞ 확장 개통

우드랜드 등 접근성 향상

장흥 관산읍 외동리에서 용산면까지 국도23호선 10.12㎞ 구간의 2차로 시설개량 사업이 마무리돼 12일 완전 개통됐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이번 대덕~용산 국도시설개량공사는 2016년 3월 착공 이후 6년 6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539억원이 투입됐다.

2차로 도로 폭을 기존 9.5m에서 11.5m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해 장흥군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 개선과 함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머니 테마공원, 천관산 도립공원, 정남진 전망대 등 지역 관광자원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으로, 장흥토요시장, 우드랜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다.

전 구간 갓길 확장과 마을 및 관산 남초등학교를 우회하는 외동터널(326m) 등 외곽도로(평촌마을~산서마을)를 신설해 주거지역 및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이용자의 쾌적한 주행성, 통행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도로기반시설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